

산방과후 설명회에 초대합니다.



학교 가는 우리 아이, 방과후는 어떤가요?

맞벌이 부모는 고민이 많습니다. 이만큼 커준 아이가 자랑스럽고 예쁘지만, 또 한편으로는 방과후에는 어떻게 지내게 될지, 친구들과는 어떻게 지낼지 설렘보다 걱정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. 학교 일과가 끝나고 부모가 집에 오기 전까지 이 학원 저 학원 사교육에 물들게 하는 것도 안타깝고, 그렇다고 무작정 집에 방치하기에는 놀 친구도, 함께 돌봐줄 마을도 없는 요즘, 오히려 게임중독에 아이가 빠지거나 앓을까 걱정입니다. 더구나 긴 방학에는 아이를 어떻게 보살필지 걱정이 여간이 아닙니다.

아이에게 딱스한 보살핌 속에 쉬고, 놀고 배우는 터전이 필요합니다. 특히 저학년은 학교에서 많이 긴장하는데 그것을 신나는 놀이로 딱스한 보살핌으로 풀 자리가 필요하지요.

여기 산방과후를 소개합니다. 부모들이 교사들과 함께 직접 노력하는 **아이들의 삶터**입니다.

공동육아 산방과후는?

- ◆ 부모와 교사, 아이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생활교육 공간.
공동육아 방과후 10년의 전통, 부모 공동출자 터전.
- ◆ 우리 아이에게 **집처럼 편안한 보살핌**을!
학기중: 월~금 오후 7시까지, 방학중: 아침 10시-오후 6시까지.
교사 1인당 아이 10명 규모 (현재 어린이 20명 교사 2분),
- ◆ 우리 아이들에게 **안전한 먹거리**를!
- 생협의 친환경 과일, 채소 등으로 자연 새참을 먹어요.
- ◆ 우리 아이들에게 **흠뻑 빠지는 놀이**를!(게임이 아닌 살아있는 놀이)
- 텃밭에 빠지기, 성주산 자연에 빠지기, 땅놀이에 빠지기
- 나들이(자전거여행, 서울 성곽나들이, 문화공연...) 주 1회
- 방학중 2박3일 들살이여행. 습식수채화, 직조, 뜨개질 등 손놀이
- 몇 년을 함께 사귀면서 세상을 배워가는 친구 언니동생 관계
- ◆ 우리 아이들에게 **이웃**을, **마을**을!
- 아이만 보내는 곳이 아닌 부모가 참여하여 운영하는 곳

궁금하시면 ~

산방과후 설명회에 꼭 오세요!

▶ 때: 2014.11.15.(토) 낮 3시

▶ 곳: 소사구 송내동 463-62

(송내 이편한아파트 앞 상가 3층,
홈마트, 하랑합기도 건물 3층)

▶ 문의

: 산방과후 032-661-9213

언덕(대표교사) 010-8718-0306

얼씨구(이사장) 010-8636-6515

<http://sanbang.gongdong.or.kr/>